

2024년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4년 3월 28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창용 의장(총재)
조윤제 위원
서영경 위원
신성환 위원
장용성 위원
유상대 위원(부총재)
황건일 위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여자	강승준	감사	민좌홍	부총재보
	이상형	부총재보	이종렬	부총재보
	김웅	부총재보	채병득	부총재보
	최재호	커뮤니케이션국장	이지호	조사국장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박종우	금융시장국장	오금화	국제국장
	권민수	외자운용원장	백무열	법규제도실장
	최용훈	금융통화위원회실장	허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1호 - 「2023년도 연차보고서」(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 및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2023년도 연차보고서」(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3월 18일 개최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관련부서는 동 보고서가 당행 업무 및 조직경영 전반을 다루는 유일한 보고서인 점을 감안하여, 각 업무를 균형있게 기술하면서 당행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강조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고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주요 정책적 역할과 관련하여 긴축 기조 유지,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대외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국제행사 및 세미나 개최와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 노력을 충실히 기술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경영·인프라 측면에서는 본부 재임주에 대하여 보안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한편, AI,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 적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효과도 강조하였다고 설명하였음. 아울러, 기존 연차보고서에 비해 사진과 인포그래픽 등 시각적 요소를 확대하였다고 첨언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위원들은 이번 보고서 내용이 대체로 충실하게 구성되었으며 사진과 그래픽이 늘어난 만큼 가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개선 의견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우선 일부 위원은 ‘I. 경제 동향’에서 우리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본문 내용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프의 구성, 표현방식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II. 업무 현황’의 구성과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을 II장의 앞부분에 배치하고 전략목표 관련 내용은 별도의 박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부록’의 ‘한국은행 개요’에 한국은행의 주요 연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표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였음.

그 밖에도 일부 위원은 세부 내용을 각주로 보완하고, 보고서내 그림의 재배치 등을 통해 가독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수정·보완하였다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23년도 연차보고서(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23년도 연차보고서」(안)(생략)

나. 보고안건

<보고 제23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23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이어서 관련부서는 3월 20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우선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최근 금융안정 상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기존 분석방법의 개선을 통해 보다 정교한 결과를 도출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음. 이와 함께 보고서 작성에 대한 여러 개선방안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다수 위원들은 금융안정 관련 지수가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부동산PF, 취약차주 등의 부실위험도 최근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잠재리스크가 잘 드러나도록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기술을 요청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비은행권의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영업전략이 실제 수익률 향상에 도움을 주었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으며, 신용시장 부문에서 기업신용을 평가할 때 기업대출보다는 기업신용 전체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비은행권 부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부실 우려 부동산PF에 대한 질서있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현재 금융기관의 연체율에는 분기말 부실채권 매각·상각 효과가 반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동 효과를 감안한 실질적 수준의 연체율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끝으로 일부 위원은 보고서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주요 금융안정 리스크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서 기술하는 한편, 스트레스 테스트시 금융안정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이외에도 연체율이나 취약차주 비중 등 여타 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아울러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과제로 추진하고, 향후 금융안정 상황 점검시에 유념하여 살펴보겠다고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첨)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 및 경제주체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에 따른 일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및 민간신용 레버리지 재상승 가능성에 유의하여 금융시스템내 취약성 및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책당국의 공동 대응에 힘입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PF의 경우 향후 부동산경기 등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겠음.

또한 가계 및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주요국 상업용부동산 시장 등의 조정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해외 익스포저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기업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거시경제 또는 차주의 금융이용 여건 변화에 따라 중기적 시계에서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확대 압력이 커질 수 있음.

이와 같은 리스크 요인에 대해 금융기관과 정책당국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금융기관은 이해당사자와 함께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 하면서 손실흡수력 제고를 통해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하겠음.

정책당국은 취약부문에 대한 미시적 지원조치와 함께, 정책 공조를 통해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앞으로도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 증가폭의 둔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